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6권 1호(2016년 6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이  
플  
그  
라  
프

##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산학협력연구동 1413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mailto:multiculture@daegu.ac.kr)

###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연희

운영위원 김동윤, 김명광, 김화수, 노성향, 이민경, 이용승, 이희영,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용승(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박계영(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교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서울대), 염미경(제주대), 이민경(대구대), 이소영(대구대), 이희영(대구대), 이수정(덕성여대), 장혜진(대구대),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Ratih Pratiwi Anwar(Universitas Gadjah Mada, Yogyakarta)

편집간사 이교일

표지디자인 김수정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6년 제6권 1호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6권 1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 논문

---

-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용승 1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  
- 인권, 반편견·반차별교육을 중심으로- / 서보라·박찬석 27
- The System of Adverbial Case Markers in Korean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  
Jun-Seok Park 66
- Gaytrification and The Re-orienting of Sexual Peripheries / Milton Hae Robert 90
- A Brief Description of Culture Shock Among Latin American Nationals in South Korea /  
Andrés Aguilera · Mauricio Guerrero 120

## 서평

---

- ‘다’양한 ‘다’문화 현상의 ‘다’면적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다문화사회론 / 정의철 170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6권 1호를 펴내면서

생활공간 주변에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만남이 일상화되고, 이들의 생활과 문화가 보여주는 차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 새롭거나 이질적인 느낌이 다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6년 4월 기준 197만 여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에서 3.4%를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이들과 관련된 사회공간적 이슈들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 그동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 및 정착 과정에 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연구자들도 다소 열기가 식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동안 이들에 관한 양적 연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만,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들에 바탕을 둔 질적 연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국제 이주와 이민에 관한 연구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이해관계, 수용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노동 이주민의 국적과 시민권 등 근대 국민국가 체계에 기반한 근대적 틀 속에서 연구 주제를 파악 또는 이해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민국가가 지배적인 현실을 반영한 연구 방법론, 즉 이른바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구화에 따른 초국적 이민과 이주 현상은 이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민과 이주를 고정된 국민국가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국가 간을 이동하고 적응/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틀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30여 년간 지구화의 촉진과 시공간적 압축으로 인해 이동성(mobility)이 급증하면서 국민국가체제를 능가하는 새로운 의미의 초지역적·초문화적 이동 사회(trans-regional and trans-cultural mobile societies)가 생겨나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일어나고 있는 지구적 수준의 이동은 이동의 규모와 빈도,

지속성과 유동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적, 정책적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예로 ‘유연적 이동성’을 통해 초국적 이주자들이 이주 및 정착, 귀환 그리고 재이주 시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동적 사회문화자본을 어떻게 동원하고, 축적하고, 활용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과 분석 방법들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호에 투고된 논문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용승의 연구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다문화수용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제고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정책 구현의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이의 증대를 ‘사실’, ‘당위’, ‘이익’, ‘옳음’의 관점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네 가지 정당화 논리가 서로 중첩될 뿐만 아니라 상호 규율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는 담론과 교육, 정책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관해 연구한 서보라, 박찬석은 특히 인권, 반편견, 반차별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가 당위와 윤리의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반편견·반차별교육 프로그램 등 총 3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5학년생들에게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편견과 차별적 행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가진 편견과 차별적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이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문화교육이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박준석의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부사격조사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동안 부사격조사는 의미나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활발히 연구되었지만 형태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미진했음을 지적하고, 한국

어의 문법 형태, 특히 조사나 어미는 문장이나 담화에서 유표적 표지로서 나타나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그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체계가 조사 ‘-에’와 ‘-에서’와 ‘-(으)로’의 세 개의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하위 부류가 성립된 것으로 고찰하고 있다.

나머지 2편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정착 및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나아가, 소수자의 문화가 공간 및 장소에서 어떻게 대체되는가, 또는 남미출신 국적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충격을 느끼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밀턴 해 로버트(Milton, H. R.)의 연구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urban gentrification)에 유추하여 (동)성애적 공간과 장소가 어떻게 대체되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게이티피케이션(gay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와 성애의 지리를 탈안정화하는 자본주의 문화적 힘의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공간이 성적 자아의 결속성을 어떻게 이완시키고, 조작하고 심지어 지배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한국에 체류 중인 남미국적 외국인들이 어떤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는가를 고찰한 콜롬비아 보고타의 EAN대학교 교수들인 아길레라(Aguilera)와 귀레로(Guerrero)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화적 충격의 주요 원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들은 4가지 주요 범주들, 즉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장벽, 종교 및 전통, 그리고 개인적 문제들에 관해 64명의 응답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문화적 충격의 주요 원인은 한국어 이해 및 말하기, 읽기와 쓰기 등 언어구사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끝으로 정의철의 서평은 <다문화사회론>(엄한진 저)을 “다’양한 ‘다’문화 현상의 ‘다’면적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라고 지칭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 다른 문화의 입장으로 감정, 사고, 가치관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왜 필요한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평자는 이 저서를 관통하여 저자가 국내외 이주와 다양한 다문화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함을 바탕으로 다문화정책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문화 간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성찰과 체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과 교육, 일상의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한편으로 출신국을 떠나온 이주자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능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한국 사회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촉구된다고 하겠다.

2016년 6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